



교섭속보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재욱

2차 산별현장교섭 보고

교섭원칙 구두합의, 일부요구안 발제 거부 직원고충 이해하는 교섭 되어야!



11일 오후 3시 경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섭은 대표위원 인사를 시작으로 현장문제 공유, 교섭원칙 합의, 노동조합 요구안 전체 발제로 이뤄졌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대표위원 인사에서 “오늘 요구안 발제하시는 것을 열심히 듣겠다.” 고 말했으며, 노재욱 투쟁본부장은 “노사가 신뢰를 쌓는 교섭이 되었으면 한다. 신뢰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하며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밝혔다.

교섭 진행 전, ▲ 토요종업시간 문제 ▲ 간호부 연장근무입력시스템 문제공유하고 해결책 논의하기로

우리지부는 교섭을 진행하기 전, 토요일 종업시간에 대한 의료원 인사팀 회보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간호부 셋다운(연장근무입력시스템)과 관련한 현장의 고충도 전달하고 IT등의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IT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교섭원칙은 구두로 합의, 일부 요구안에 대해서 발제 거부

올 해도 결국 교섭원칙은 구두로 합의했다. 매년 같은 원칙을 가지고 합의를 요구하고 지난 모든 교섭에서 원칙에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서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또한 요구안을 발제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원은 ‘올 해는 임금교섭’ 이라며 산별현장공동 요구안(▲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의료법 준수 ▲ 노사관계 발전) 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노측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임금인상 요구 중 ▲비정규직 임금 ▲장명퇴 사직

자리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 개정으로 인한 신설 및 개정요구에 대해서는 발제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노측 교섭위원들은 ‘노조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발제를 막지 말라.’ 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결국 정회하기에 이르렀다.

약 20분간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 노측은 요구안을 전체 발제 했으며 사측은 발제하는 중 요구안 마다 ‘발제 거부’, ‘교섭대상 아니다.’ 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산별현장교섭 교섭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단체교섭은 주 1회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목요일 오후 3시(단, 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한다.)
2. 교섭위원은 노사 각 6인(간사포함 7인)으로 한다.
3. 비전임 교섭위원 공가는 교섭 당일 병원별 1인 총 3인으로 한다.
4. 참관인은 단체교섭 시, 교섭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5. 회의는 공개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녹음 및 사진촬영을 허용한다.
6. 노사 교섭대표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 노사가 협의한다.)
7. 교섭사회는 노사 윤번제로 한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직원들의 고충을 노사가 함께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교섭 자리다. 그럼에도 임금교섭이라는 이유로 의료원은 임금과 관계없는 요구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이 신뢰교섭인가? 의료원이 임금교섭이라는 이유로 요구안을 거부한다면 차라리 매

년 임금단체교섭으로 진행하자.

이제는 좀 바꾸자! 교섭에서 취하는 시측위원들의 교섭 논리는 벌써 십 몇 년 교섭과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 변하질 않는다. 마치 조금이라도 변 하면 의료원이 망하는 것처럼.

의료원 90주년의 비전을 천명하는 21세기에 20세기식 교섭은 이제 그만하 고, 직원들을 위해 줄 것은 주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주는 쿨 한 의료원이 될 때다.



노동존중 사람존중 고대의료원 만들기 - 수당 인상 및 신설(2)

2. 명절수당 인상 55% -> 100% (설 25%, 추석 30% -> 각각 50%로 지급)

<타 병원 명절수당 지급 현황>

병원	호봉	설 25%	추석 30%	
고대의료원	일반직	1년차(5호봉)	361,500원	433,800원
		5년차(9호봉)	404,750원	485,700원
		10년차(14호봉)	467,250원	560,700원
	일반업무직	1년차(4호봉)	298,750원	358,500원
		5년차(8호봉)	357,250원	405,300원
		10년차(13호봉)	389,000원	466,800원
중앙대의료원	전 직종	정액 50만원	정액 50만원	
이대의료원		기본급 50%	기본급 50%	
CMC		정액 40만원	정액 40만원	
연세의료원		상여금 25% + 15만원	상여금 25% + 15만원	
공무원 규정		기본급 60%	기본급 60%	
경기도의료원		기본급 60%	기본급 60%	
조선대병원		기본급 60%	기본급 60%	

■ 명절 수당도 올려주고 으이! 명절 선물도 폼 나는 것 좀 주고 으이! 다른 병원에 자랑 좀 하게 해 주자!

한국에서의 가장 큰 휴일은 바로 설 추석등의 명절이다. 온 친척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고대병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은 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뭘 주냐고 했을 때 집에 들고 가기에는 약간 민망한 수준의 선물이다. 그렇다고 명절수당으

로 용돈을 드리기에 너무 적은 부분이다. 또한 동료들이 전부 병원에 다니고 있으니 타 병원과 비교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외에도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상계백병원도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설 지냈으니, 추석은 방콕 해야겠다.

2019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총 76곳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비용으로 178,046원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품목은 주요 제수용품으로 간소해지고 있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하여 냈음에도 약 20만 원 가량이 소비된 것이다. 또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사람인)에서 직장인 815명을 대상으로 설 지출 중 부모님 용돈과 선물로 386,000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차비와, 문화 여가비 등을 합산했을 때는 5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료원의 명절 지급 금액은 시종일관 착하다. 이제는 올려줄 때도 된 것 같은데...

3. 위험수당 인상 7만 원 -> 10만 원

■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봉급 외에 지급되는 보수, 나의 목숨 값 고작 7만원.

우리는 병원에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자들에게 숨겨진 각종 감염과 세균 환자보호자들의 위협적인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대처가 강화되고는 있으나 유명무실하기만 하다. 더욱이 사스, 메르스등의 감염병이 발발하면 직원들은 더욱 더 위험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 병원에서 일하지만 건강관리는 ZERO, 일반 건강검진 외에는 아무것도.

의료원은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타 병원은 내시경검사나 추가검사 등을 무료로 해주는데 비해 고대는 없다. 그냥 피 뽑고, 엑스레이 해주고 그게 건강관리다. 그러다 아프면 내 연차와 내 돈으로 치료해야 한다.

고대의료원 1조 클럽의 품격, KUMC MEDICINE의 품격

건물로만, 수익으로만 찾으려 말고 노동을 존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자. 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개선소송 동의서 작성바랍니다!

조합원의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09시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소송인 만큼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오니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에 오셔서 서명바랍니다. 또한 조합원 중 휴직자 동의문제로 인해 8월 중순경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